

ICT산업 동향 및 전망

(2025년 3분기)

- I. 반도체
- II. 디스플레이
- III. 휴대폰
- IV. 향후 전망

작성

선임연구원 이미혜 (6255-5404)



 한국수출입은행

※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,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.



< 요약 >

I. 반도체

2025년 2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6% 성장하면서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

- (세계시장)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2%, 전분기 대비 12% 성장한 302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6% 감소, 전분기 대비 20% 성장한 158억 달러를 기록
- D램 시장은 AI 인프라 수요 등으로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, 낸드플래시 시장은 공급과잉 등으로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전분기 대비 18% 성장
- 3분기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견조한 AI 인프라 투자 수요로 D램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, 기업용 SSD(Solid State Drive) 수요도 증가할 전망
- (가격) 2분기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6.8%,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6.6% 상승했으며, 3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평균 가격은 각각 전분기 대비 15~20%, 5~10% 상승할 전망

II. 디스플레이

2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.5% 역성장한 331억 달러로 추정

- (세계시장) OLE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.9% 역성장한 128억 달러로 추정되며 IT용 패널이 성장을 견인, LC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% 성장한 203억 달러로 추정
- 1분기에는 중국의 이구환신(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) 보조금, 미국의 관세 부과전 스마트폰TV 출시 등으로 패널 수요가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중국 보조금 효과 약화, 1분기 패널 재고 확보 영향 등으로 패널 수요 둔화
- (가격) LCD TV 패널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~4% 하락했으며 3분기에도 하락세 지속, OLED TV 패널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6% 하락했으며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

III. 휴대폰

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.0% 증가한 3.0억대를 기록

- (세계시장) 스마트폰 출하량은 AI를 탑재한 신모델이 다수 출시되었으나 미국의 관세 변동성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저가폰 중심으로 수요가 위축됨
- (점유율)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7.9% 증가하면서 1위를 유지



IV. 향후 전망

2025년 D램 시장 성장률은 기존 28.4%에서 36.0%, 낸드플래시 시장 성장률은 기존 9.4%에서 △0.2%로 수정 전망

- D램 시장 성장률은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유지되는 AI 서버 수요,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 등으로 상향 조정
- Big Tech는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5년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했으며, 회사별 CAPEX는 Meta는 기존 640~720억 달러에서 660~720억 달러, 구글은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확대
- 낸드플래시는 상반기에 업황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3분기부터 기업용 SSD 수요가 확대되며 업황이 개선될 전망

2025년 디스플레이 시장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하반기 수요 둔화 우려 확대로 당초 전년 대비 6.5%에서 3.2%로 하향 조정되었으며, 이에 따라 시장규모는 1,395억 달러로 전망

- 2025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기존 전망치 대비 7억 달러 하향 조정되었으며 LCD와 OLED의 비중은 각각 58.5%와 40.5%로 전망
- OLED 시장 성장률은 기존 6.5%에서 4.4%로, LCD 시장의 성장률은 기존 3.3%에서 2.5%로 하향 조정하며 각각 시장규모는 564억 달러와 735억 달러로 전망
- OLED는 스마트폰의 저전력 LTPO(Low-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, 저온다결정 산화물) 기술 채택이 확대되고, IT용 패널의 OLED 탑재가 증가하며 성장할 전망
 - 아이폰은 2024년까지 아이폰 고가 라인인 Pro모델(Pro, Pro Max)에만 LTPO TFT를 적용했으나 2025년 9월에 출시될 아이폰 신모델은 전 모델이 LTPO를 채택할 전망

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기존 전년 대비 0.6% 이하 성장에서 1.0% 성장으로 수정 전망

- 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스마트폰 관세 면제 조치 등으로 소폭 상향 조정됨
-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('24)은 60%이며, 국내 공급망 강화 등에 6,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아 아이폰 출하량이 기존 전망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
- 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1%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5%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% 성장할 전망



I. 반도체

(세계시장) 2025년 2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6% 성장하면서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

- 2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2%, 전분기 대비 12% 성장한 302억 달러, 낸드 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6% 감소, 전분기 대비 20% 성장한 158억 달러를 기록
- D램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로 고부가 HBM(High Bandwidth Memory), 고용량 DDR5 수요 등이 견조하여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
 - D램은 생성형 AI의 고속 연산을 위한 필수 메모리반도체로 북미의 견조한 AI 투자 수요, 일반 D램 대비 4~5배 높은 HBM 가격 등으로 D램 시장이 성장
 - 삼성전자는 4월초에 DDR4¹⁾ 연말 생산종료를 발표했으며 주요 기업이 이에 동참하자 DDR4 수요 증가로 DDR4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6월에는 DDR5 가격보다 높아짐
 - * DDR4 재고확보 수요가 서버·산업용 등에서 견조했음
- 낸드플래시 시장은 공급과잉 등으로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감산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18% 성장
 -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낸드플래시 가격이 공급과잉 등으로 하락하자 연초부터 감산을 시행
 - 낸드플래시는 데이터 저장에 활용되며, AI 투자가 고속 연산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D램 대비 업황 회복은 지연됨
- 3분기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견조한 AI 인프라 투자 수요로 D램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, 기업용 SSD 수요도 증가할 전망

세계 D램 시장규모



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



자료: 트렌드포스, 옴디아.

1) DDR(Double Data Rate)은 PC·서버용 D램 규격으로 DDR2, DDR3, DDR4, DDR5로 발전하면서 속도, 전력효율 등이 향상됨



(가격) 2분기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6.8%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6.6% 상승했으며, 3분기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견조한 AI 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

- 2분기 D램 가격*은 전년동기 대비 0.8%, 전분기 대비 56.8% 상승한 2.12달러, 낸드플래시 가격*은 전년동기 대비 39.9% 하락, 전분기 대비 26.6% 상승한 2.94달러를 기록

*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(PC용)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(메모리카드/USB용) 기준

- D램 가격은 2024년 11월 1.35달러로 하락한 이후 2025년 3월까지 5개월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주요 기업의 DDR4 생산종료 추진으로 4월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
- 낸드플래시 가격은 2024년 4분기부터 시작된 주요 낸드플래시기업의 감산 등으로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전월 대비 상승세 지속
- 3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평균 가격(Blended ASP²)은 각각 전분기 대비 15~20%, 5~10% 상승할 전망
- D램은 주요 기업의 DDR4(PC·서버용 D램 규격), LPDDR4(모바일 기기의 D램 규격) 단종 추진 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
 - 주요 기업에 이어 중국 CXMT도 2026년 상반기까지 DDR4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 발표되면서 3분기 PC용 DDR4 가격은 전분기 대비 40% 상승할 전망
- 낸드플래시 가격은 주요 기업의 감산, 고성능 AI 서버 출하량 증가 및 기업용 SSD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
-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3분기 낸드플래시 가격이 북미 주요 클라우드의 AI 투자로 기업용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해 전분기 대비 5~10% 상승할 것으로 전망

D램 가격



낸드플래시 가격



주: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(PC용)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(메모리카드/USB용)
고정거래 가격 기준.

자료: 트렌드포스.

2) Average Selling Price



(기업) 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으나, 삼성전자는 HBM 부진,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됨

- 삼성전자의 DS부문³⁾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% 증가한 27.9조원, 영업이익은 0.4조원을 기록
-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% 감소한 21.2조원, 메모리반도체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% 감소한 증가한 6.7조원을 기록
 -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(HBM, DDR5 등) 등으로 전분기 대비 11% 증가
 - 시스템LSI는 7월에 출시된 갤럭시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을 공급했으며, 파운드리는 낮은 가동률 등으로 매출 확대의 어려움 지속
- 영업이익은 HBM*과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규제로 인한 파운드리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반영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1%를 기록
 - 1월부터 미국의 HBM 대중국 수출통제가 강화되면서 HBM2 이상 모든 HBM이 규제 대상
-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5.4% 증가한 22.2조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
- D램 매출은 HBM3E 12단 판매 본격 확대, 서버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8% 증가한 17.1조원,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% 감소한 4.7조원을 기록
-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8% 증가한 9.2조원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률은 41%를 기록
 -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영업이익 6.5조원을 4분기 연속 뛰어넘음
- 마이크론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6.6% 증가한 93.0억 달러, 영업이익은 24.9억 달러를 기록
- D램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0.7% 증가한 71억 달러,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.4%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
 - HBM 매출은 엔비디아 GB300에 채택된 HBM3E 12단 출하 등으로 전분기 대비 약 50% 증가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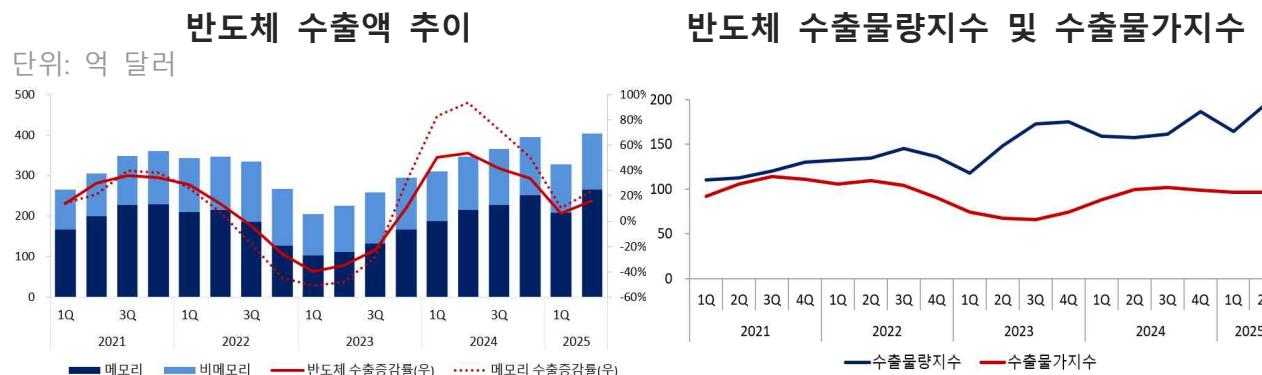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3) Device Solution으로 반도체사업을 영위



(수출) 2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6.3% 증가한 40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반도체 수출물량지수가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상승해 3분기 수출에 긍정적 시그널을 제시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.8% 증가한 26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
- D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1.2% 증가했으나 낸드플래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9.1% 감소
 - 낸드플래시 수출은 2024년 8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축소되는 추세
-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.2%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
-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.8% 증가한 93억 달러, 아날로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.2% 감소한 29억 달러를 기록
- 대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.0% 감소,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8.2% 증가
- 중국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3.1% 감소한 125억 달러,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8.9% 감소한 47억 달러로 총 172억 달러를 기록
- 대만 수출은 견조한 HBM 수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.2% 증가한 6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대만은 2024년 2분기부터 베트남을 제치고 반도체 2위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
- 베트남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2.3%,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51.2% 증가하면서 59억 달러를 기록
- 반도체 수출물량지수(2020=100)는 전년동기 대비 23.9% 상승한 195.0, 수출물가지수(2020=100)는 전년동기 대비 3.2% 하락한 96.5을 기록
-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D램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.9% 상승, 낸드플래시와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8.4%, 0.7% 하락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20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

II. 디스플레이

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.5% 역성장, 전분기 대비 1% 성장한 331억 달러로 추정

- (OLED) OLE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.9% 역성장한 128억 달러로 추정되며, IT용 패널 등이 성장을 견인
-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은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1.5% 감소했으나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% 상승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0.6% 성장한 94억 달러로 추정
-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스마트폰을 출하하기 위해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패널 재고를 확대했으나 2분기에는 패널 수요 둔화
- TV 패널 시장은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4% 증가하고 패널 크기가 커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1.5% 성장한 10억 달러로 추정
- TV 패널 평균 크기는 2024년 2분기 63.7인치에서 2025년 2분기 64.9인치로 확대
- 태블릿용 패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9% 역성장한 6.0억 달러, 노트북과 모니터용 패널 시장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40% 증가한 5.1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25% 성장한 2.4억 달러로 추정
- (LCD) LC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% 성장한 203억 달러로 추정되며 8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
- TV 패널 출하량은 1분기에 중국의 이구환신(以舊換新,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) 보조금, 미국 관세에 대비한 패널 선구매 등으로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

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

단위: 억 달러



자료: 옴디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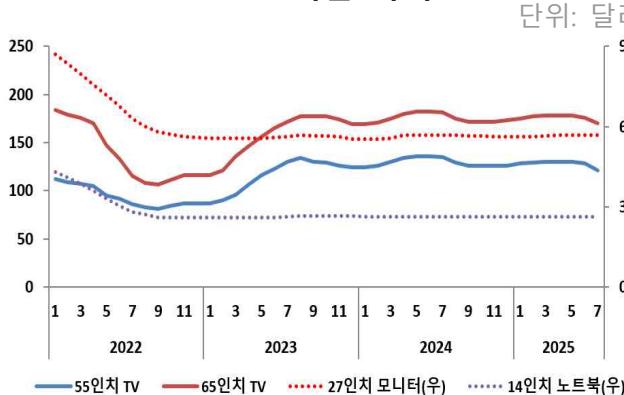


(가격) 2분기 LCD TV 패널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~4%, OLED TV 패널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6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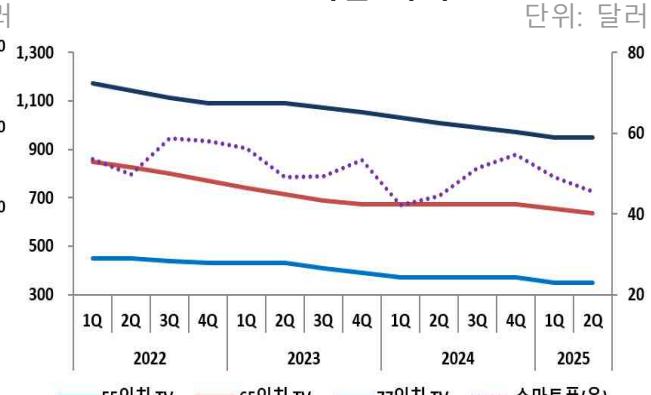
- (LCD) 55/65인치 패널 평균 가격은 2분기에 각각 전년동기 대비 4.4%, 2.2% 하락한 129.3달러와 177.3달러를 기록했으며 3분기에는 패널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
- LCD TV 패널 가격은 중국의 이구환신 보조금 등으로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상승했으나 LCD TV 패널 팹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
 - LCD TV 패널 가격은 변동성이 높았으나 한국 디스플레이기업의 LCD TV 사업 구조조정⁴⁾ 이후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이 패널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2023년 중반부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
- 3분기 LCD TV 패널 가격은 주요 세트기업의 미국 관세에 대비한 상반기의 선제적 패널 확보 등으로 패널 수요가 둔화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
- 글로벌 상위 TV 제조사들은 TV 사업 수익성 악화,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하반기 수요 둔화 우려로 2분기 중반부터 LCD TV 패널 가격 인하를 요구해 7월에 일부 패널 기업은 가격을 인하
- (OLED) OLED TV 패널 가격은 2분기에는 원가절감 노력, 일부 생산라인 감가상각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% 하락하였으며,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보합세 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65인치와 77인치 OLED TV 패널 가격은 각각 595달러와 950달러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 했으며, 동일 크기 OLED TV와 LCD TV 패널의 가격차는 좁혀지는 추세
- 스마트폰용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7.6% 하락했으나 3분기에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* 등으로 전분기 대비 20% 이상 상승할 전망

* 아이폰17 시리즈 등

LCD 패널 가격



OLED 패널 가격



자료: 옴디아.

자료: 옴디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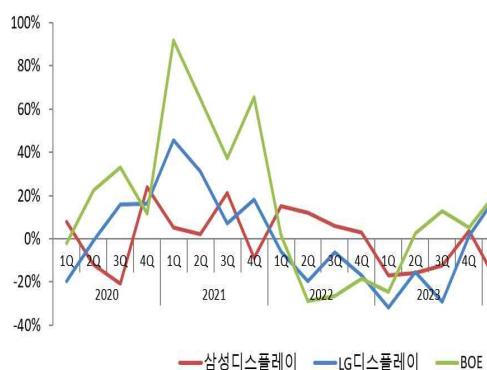
4)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LCD 사업에서 철수. LG디스플레이는 2022년말 국내 LCD 패널 생산을 중단했으며 2025년 3월에 중국 광저우 LCD 팹 매각을 완료



(기업) 2분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매출은 원화 강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며, 양사는 경제 불확실성,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성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

- (삼성디스플레이)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7% 감소한 6.4조원, 영업이익은 0.5조원을 기록
 - 매출은 신모델 갤럭시Z폴드7·갤럭시Z플립7 등에 패널을 공급하고, 모니터는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에도 불구하고 OLED 경쟁심화, 원달러 환율 강세 등으로 감소
 - TV는 주요 고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했으며, 모니터는 고해상도 제품에 이어 500Hz 고주사율 제품을 출시해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고, 게이밍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
 -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0% 감소한 0.5조원, 영업이익률은 7.8%를 기록
 -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21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
- (LG디스플레이)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7% 감소한 5.6조원, 영업손실은 1,16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
 - 매출은 스마트폰용 패널 비수기 영향, LCD TV 패널 사업 종료, 원화 강세로 인한 달러 환율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% 감소했으며, OLED 매출 비중은 56%를 기록
 - 면적당 판가는 판가가 낮은 LCD TV 패널 사업 종료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% 증가한 1,056달러를 기록했으나, 패널 출하면적이 전년동기 대비 38% 감소
 -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되면서 1,160억원 손실을 기록했으나 상반기 기준 영업손실은 8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,805억원 개선
 -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중국 광저우 OLED 패널 감가상각이 일부 종료되면서 원가구조가 개선될 전망
 - 순이익은 외환 손익 개선, 중국 광저우 LCD 패널 지분 매각 수익 등으로 8,908억원을 기록하면서 10년만에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BOE의 영업이익은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.

자료: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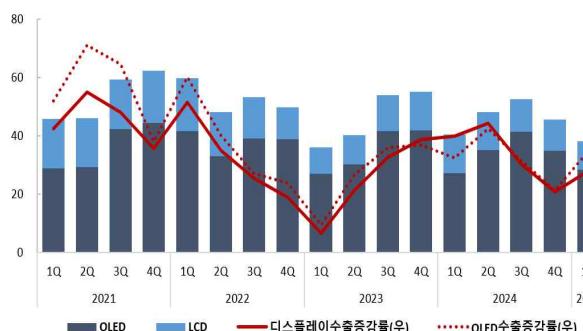


(수출)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.5% 감소한 37.9억 달러를 기록

-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.3% 감소한 28.1억 달러,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.8% 감소한 9.7억 달러를 기록
- OLED 수출은 주요 수요기업이 1분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전 패널 재고를 확대한 결과 2분기에는 재고조정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
 - 모바일용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% 감소한 18.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, IT용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% 증가한 6.5억 달러, TV용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% 감소한 2.7억 달러를 달성
- LCD 수출은 차량용 패널 수요 부진 등으로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⁵⁾
- 대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7.5%,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9.1% 감소
- 대중국 수출은 OLED와 LCD 수출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10.1% 증가, 22.7% 감소하면서 11.6억 달러를 기록
- 대베트남 수출은 미국 관세 리스크 등으로 OLED와 LCD 수출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30.2%, 11.3% 감소하면서 20.7억 달러를 기록
- 디스플레이 수출물량 지수(2020=100)와 수출물가지수(2020=100)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.1%, 2.1% 하락하면서 111.5와 92.5를 기록
- OLED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4.4%, 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.6% 하락

디스플레이 수출액

단위: 억 달러



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20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5) LCD TV 패널의 국내 생산은 2022년에 종료되었으나 중국 등에서 패널 수입 후 해외 생산 거점으로 재수출하는 수출 구조에 따라 LCD TV 패널 수출이 발생 (IITP)



III. 휴대폰

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⁶⁾은 전년동기 대비 1.0% 증가한 3.0억대를 기록

- 스마트폰 출하량은 AI를 탑재한 신모델이 다수 출시되었으나 미국의 관세 변동성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저가폰 중심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.0% 성장
-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6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했으나 2분기에는 경제불확실성, 이구환신 보조금 효과 약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.0% 감소한 69.0백만대를 기록
 - 1월부터 지급된 이구환신 보조금은 판매가의 15%를 지급하며, 상반기 보조금 조기 소진 등으로 6월초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재개
-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7.3% 증가한 37백만대를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에서 탈피
- 미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관세 부과에 대비하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출하 확대를 추진했으나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 급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% 성장
 - 미국은 4월 12일에 스마트폰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8월중에 품목관세 부과를 발표 할 예정이었으며, 중국산 스마트폰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펜타닐 관세 20%를 부과
- 동남아 스마트폰 출하량은 경제 불확실성(관세 등)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% 감소, 중동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정학적 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15% 증가⁷⁾
-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2013년 이후 처음으로 8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으며,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신모델 출시 등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할 전망

세계 스마트폰 출하량



자료: IDC.

6) 스마트폰 제조사가 유통업체나 통신사 등에 제품을 공급한 물량

7) 움디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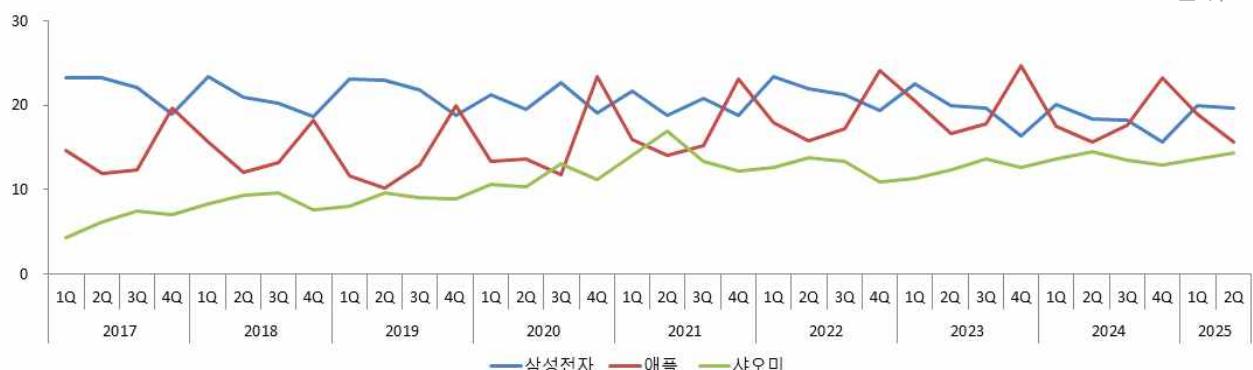


(시장점유율)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7.9%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유지

-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7.9% 증가, 시장점유율은 19.7%를 기록
- 삼성전자는 2월에 출시된 갤럭시S25의 신모델 출시 효과는 감소했지만, 3월부터 출시된 중저가 갤럭시 A36·A56 등의 판매호조로 Top 3 기업중 가장 높은 출하량 증가율을 기록⁸⁾
 - 갤럭시A36과 A56은 A 시리즈 최초로 생성형 AI를 탑재했으며, 이는 소비자들의 AI에 대한 관심 증대로 스마트폰 출하량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
 - 미국 출하량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스마트폰 재고를 확보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8% 증가⁹⁾
-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.5% 증가, 시장점유율은 15.7%를 기록
- 중국 출하량은 생성형AI 도입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% 감소했으나 인도, 중동 등 신흥국 출하량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.5% 증가
 - 중국에서 생성형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 모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, 애플은 아이폰에 알리바바의 AI를 탑재할 계획이나 미중갈등으로 중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음
 - 미국 출하량은 관세 부과 우려로 소비자 구매가 1분기로 일부 앞당겨진 영향 등으로 2분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% 감소
-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 수요 회복,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.6%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은 1.4%를 기록했으며, 8개 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
-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는 중국 출하량이 이구환신 보조금 수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.4% 증가한 영향이 크며,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줌

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

단위: %



자료: IDC.

8) 갤럭시 A 시리즈는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 기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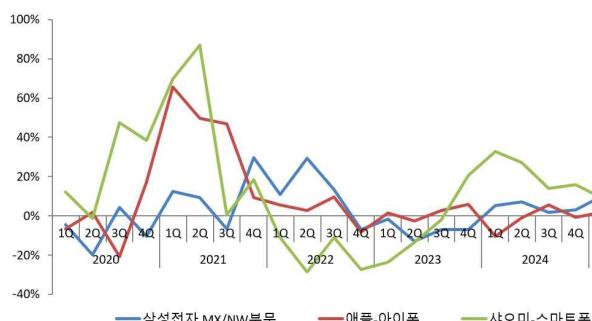
9) 움디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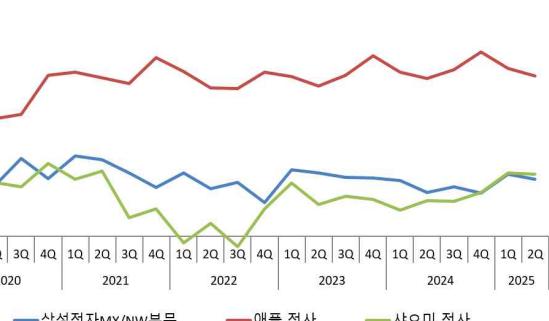
(매출·수익성) 삼성전자는 갤럭시S25의 성공적 출시 등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록했으나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등으로 매출증가율이 둔화됨

- 삼성전자 MX¹⁰/네트워크사업부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% 증가한 29.2조원,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9% 증가한 3.1조원을 기록
- 매출은 갤럭시S25 시리즈 중심의 견조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, 갤럭시A 시리즈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% 증가한 29.2조원을 기록
-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낮은 일부 부품 가격(메모리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)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% 증가한 3.1조원, 영업이익률은 11%를 기록
-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3.5% 증가한 446억 달러를 기록
- 아이폰 매출은 기기 업그레이드 수요가 역대 2분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아이폰16 시리즈가 판매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13.5% 성장한 446억 달러를 기록
- 애플의 전사 영업이익률은 프리미엄폰 시장의 높은 지배력과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서비스 사업¹¹⁾ 등으로 30%를 기록
- 샤오미의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.1% 감소한 455억 RMB¹²⁾를 기록
- 스마트폰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은 0.6% 증가했으나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이 1,073RMB로 전년동기 대비 2.7% 하락한 영향이 큼
 - 샤오미의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 하락은 4월에 출시된 저가폰 REDMI A5 시리즈의 해외 판매호조로 인한 영향이 크며, 중국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평균판매가격은 프리미엄폰 출하량 증가로 상승
 - 전사 영업이익은 고가 전기차 모델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률은 11.6%를 기록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애플과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.
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10) Mobile Experience(스마트폰, 태블릿 등)

11) 애플케어(휴대폰 보험), 애플뮤직, 애플TV, iCloud, 앱스토어 등

12) 1RMB = 190.66원 (2025.5.23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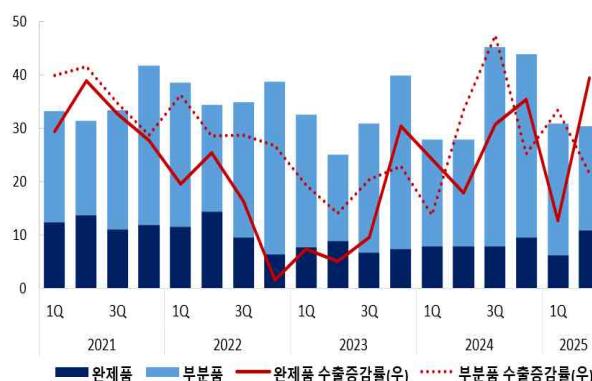


(수출) 2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.7% 증가한 한 32.3억 달러를 기록

- 완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6.2%, 부분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.2% 증가
- 완제품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등에 대비한 선제적 휴대폰 출하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.2% 증가한 10.8억 달러를 기록
- 부분품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등에 대비해 1분기에 부분품 재고를 상당량 확보하면서 2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.2% 증가한 21.5억 달러를 기록
- 대중국(홍콩 포함)과 대베트남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7.8% 증가, 6.1% 감소
- 대중국 수출은 완제품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4%, 부분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7% 증가하면서 12.8억 달러를 기록
- 대베트남 수출은 부분품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.1% 감소한 5.3억 달러를 기록
 - *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해외 주요 스마트폰 생산기지
- 휴대폰 수출물량지수(2020=100)는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한 104.5, 수출물가지수(2020=100)는 전년동기 대비 2% 하락한 96.9을 기록
 - * 수출물량지수: ('24.2분기)99.3 → (3분기)112.6 → (4분기)111.8 → ('25.1분기)78.1 → (2분기)104.5
 - * 수출물가지수: ('24.2분기)99.0 → (3분기)97.6 → (4분기)96.5 → ('25.1분기)100.3 → (2분기)96.9

휴대폰 수출액

단위: 억 달러



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단위: %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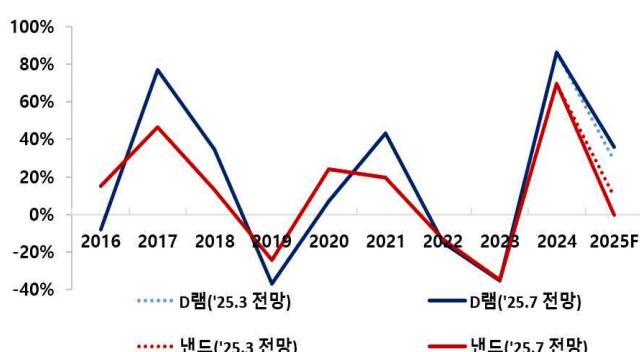


IV. 향후 전망

2025년 D램 시장 성장률은 기존 28.4%에서 36.0%, 낸드플래시 시장 성장률은 기존 9.4%에서 △0.2%로 수정 전망

- D램 시장 성장률은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유지되는 AI 서버 수요,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 등으로 상향 조정
- Big Tech는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5년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했으며, 회사별 CAPEX는 Meta는 기존 640~720억 달러에서 660~720억 달러, 구글은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확대
-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하반기 IT기기 및 반도체 수요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나 미국과 EU·일본·한국은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되고 중국과는 11월 10일까지 관세를 유예
- 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반도체 관세 100% 부과로 엄포를 놓았으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은 관세 면제를 시사하여 반도체 관세 리스크는 일부 완화됨
 -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
- 낸드플래시는 상반기에 업황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3분기부터 기업용 SSD 수요가 확대되며 업황이 개선될 전망
- AI 추론 단계에서 알고리즘을 신속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스토리지도 필요
-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견조한 서버 수요, DDR4 생산 중단 추진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나 4분기에는 미국의 관세 영향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음
- 상반기에는 메모리 재고확보 수요(pull-in demand)가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영향 본격화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구매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성이 있음

메모리반도체 성장률 전망



메모리반도체 가격 전망



주: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(PC용)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(메모리카드/USB용)
고정거래 가격 기준.

자료: 옴디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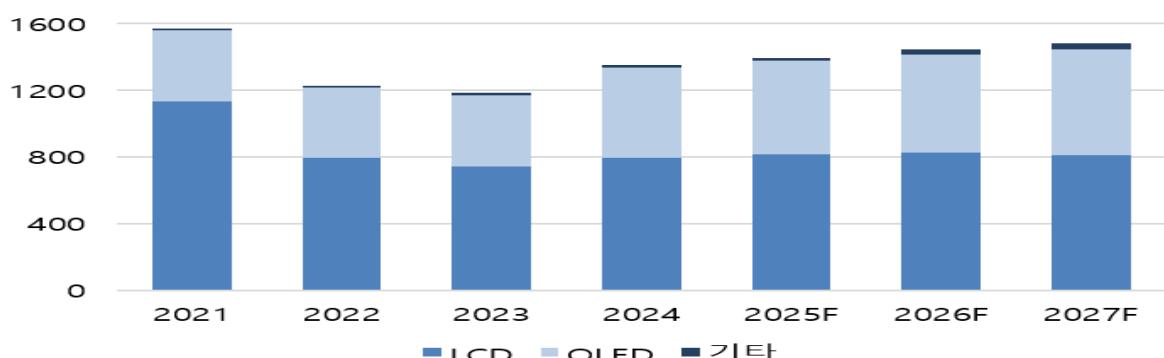


2025년 디스플레이 시장의 연간 성장을 전망치는 하반기 수요 둔화 우려 확대로 당초 전년 대비 6.5%에서 3.2%로 하향 조정되었으며, 이에 따라 시장규모는 1,395억 달러로 전망

- 2025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기존 전망치 대비 7억 달러 하향 조정되었으며 LCD와 OLED의 비중은 각각 58.5%와 40.5%로 전망
- OLED 시장 성장률은 기존 6.5%에서 4.4%로, LCD 시장의 성장률은 기존 3.3%에서 2.5%로 하향 조정하며 각각 시장규모는 564억 달러와 735억 달러로 전망
- OLED는 스마트폰의 저전력 LTPO(Low-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, 저온다결정 산화물) 기술 채택이 확대되고, IT용 패널의 OLED 탑재가 증가하며 성장할 전망
 - 아이폰은 2024년까지 아이폰 고가 라인인 Pro모델(Pro, Pro Max)에만 LTPO TFT를 적용했으나 2025년 9월에 출시될 아이폰 신모델은 전 모델이 LTPO를 채택할 전망
- LCD는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TV 수요 둔화, 스마트폰 등의 OLED 탑재 증가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
- OLED의 수요처별 시장 성장률은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 성장률은 소폭 상향, 모니터용 패널 시장 성장률을 기존 전망을 유지하나 TV·노트북·태블릿용 패널 시장 성장률은 하향 조정
-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 성장률은 기존 4%에서 6%로 소폭 상향 조정되나 미국의 스마트폰 관세가 현재 아이폰만 면제된 상황으로 하향 조정될 위험이 있음
 -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스마트폰이 생산되기를 희망하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, 애플은 기 발표된 미국내 투자 5,000억 달러에 더해 1,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해¹³⁾ 관세를 면제받음
- 모니터용 패널 시장은 견조한 게이밍 수요로 기존 성장률을 유지하나, TV용 패널 시장 성장률은 기존 2%에서 0.2%, 태블릿용 패널 시장 성장률은 8.5%에서 △13%로 하향 조정

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전망

단위: 억 달러



자료: 옴디아.

13) 애플은 American Manufacturing Program을 통해 반도체부터 유리 등 핵심 부품 제조까지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



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기존 전년 대비 0.6% 이하 성장에서 1.0% 성장으로 수정 전망

- 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스마트폰 관세 면제 조치 등으로 소폭 상향 조정됨
- 미국 스마트폰 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10%를 차지하며, 미국은 4월에 발표한 상호관세 품목에 스마트폰을 포함하지 않았지만, 스마트폰에 품목관세 부과(25%)를 언급
- 미국의 스마트폰 관세 부과는 6월말로 예고되었으나 8월중으로 연기되었으며, 8월말까지 발표되지 않음
-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('24)은 60%이며, 국내 공급망 강화 등에 6,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아 아이폰 출하량이 기존 전망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
 -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내 아이폰 생산 요구에 American Manufacturing Program을 통해 코닝, TSMC, 삼성전자, 앰코 등과 협력해 미국에서 주요 부품(유리, 반도체 등)을 생산할 계획
 - * 애플은 대만 GlobalWafers의 미국 공장에서 웨이퍼를 공급받아, TSMC의 애리조나 팹과 Texas Instrument의 텍사스 팹에서 아이폰·아이패드용 칩을 생산하고 앤코가 패키징을 담당.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팹은 이미지 센서를 공급할 전망
-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미국 3.6%, 중동·아프리카 6.5%, 중국외 아시아태평양 0.8%, 중국 1%로 전망
-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이구환신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3% 성장을 예상했으나 하반기 보조금 효과 약화,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1%로 하향 조정
 - 중국은 이구환신에 상반기에 약 1,620억 RMB를 배정, 하반기에는 1,380억 RMB를 투입할 계획
- 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1%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5%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% 성장할 전망



자료: IDC.



※ 참고 : 애플의 American Manufacturing Program

\$600 Billion U.S. Investment



450,000 jobs

with suppliers and partners
in all 50 states



Manufacturing at
**79 U.S.
factories**



All iPhone and
Apple Watch
cover glass will
be produced in
the U.S.

American-made
rare earth
magnets from
MP Materials



Expanding
U.S. manufacturing
with companies including

CORNING TEXAS
INSTRUMENTS
Amkor
BROADCOM
GW GlobalWafers Co., Ltd.
tsmc

Creating an
end-to-end silicon
supply chain
in America



자료: 애플.